



활동적 여가에 대한 고령층 참여의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연구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고령층의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활동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체육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의 경우 고령층은 낮은 참여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계층의 적극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동일 집단 내 상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여가활동 관련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 고령층 상호 간에 건강 및 생활패턴에 내재된 리스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가)시간을 향유하고 있으나, 여가활동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비 활동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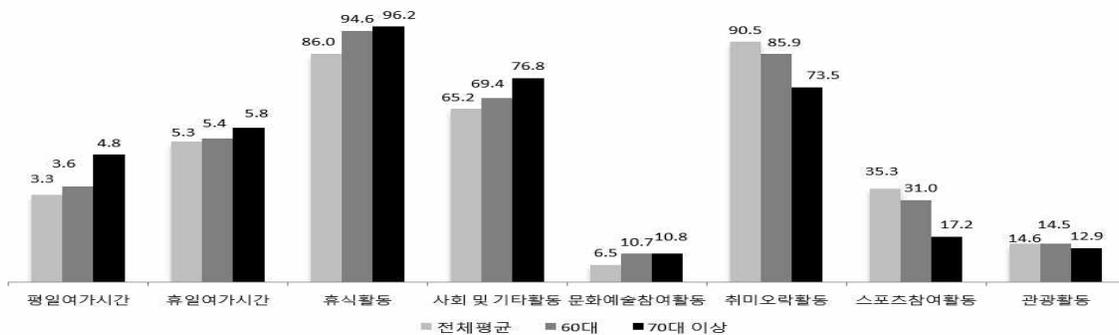
- 고령층은 평일에 60대는 3.6시간, 70세 이상은 4.8시간의 여가를 누리고 있어 국민 평균인 3.3시간보다 많으며, 휴일의 경우도 60대 5.4시간, 70세 이상 5.8시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어 전체 평균 5.3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여가활동 참여는 타 연령대에 비해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²⁾, 문화예술 참여 등에 치우쳐져 있으며,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등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여가에 대한 참여도는 낮은 경향을 보임
- 본고는 우리나라 고령층은 ‘체육’이나 ‘여행’과 같이 활동적인 형태의 여가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1) 본고의 ‘여가’는 정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정의를 따랐음.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함

2) 사회 및 기타활동은 ‘봉사활동, 친구 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스포츠, 관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우리나라 고령층의 여가시간과 주요 여가활동 유형(2018년, 국민 평균 vs. 60대 이상)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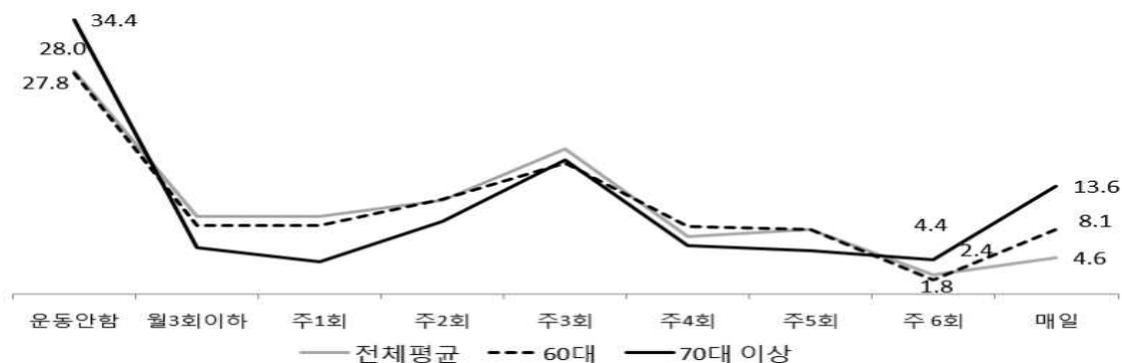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고령층의 경우 전혀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매일 체육활동을 하는 비율도 가장 높아 동일 집단 내의 양극화가 타 연령대 대비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 참조)

- 70대 이상의 경우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34.4%로 나타나 전체 평균 28.0%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 6회 또는 매일 체육활동에 참여 하는 비중도 전체 평균 대비 크게 높게 나타나 상호 양극화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6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동 빈도가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매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8.1%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2〉 우리나라 고령층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빈도(2018년, 국민 평균 vs. 60대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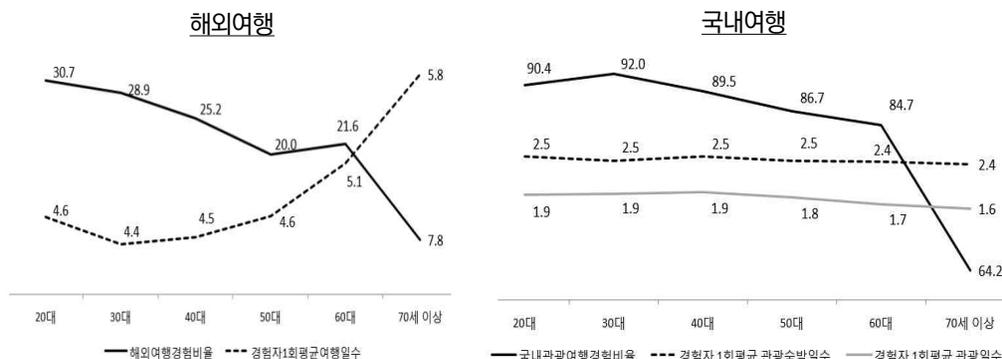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생활체육조사」

■ 고령층의 ‘해외여행’의 경우 타 연령대³⁾ 대비 경험 비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해외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면 고령층의 1회 평균 여행일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긴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70대 이상의 경우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이 7.8%에 불과했으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1회 평균 여행 일수가 5.8일로 조사돼 타 연령대 대비 가장 길게 나타남
- 60대의 경우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이 21.6%로 타 연령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나, 1회 평균 여행일수는 5.1일로 70대 이상 계층에 이어 가장 길게 나타남

〈그림 3〉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경험 비율 및 경험자 1회 평균 여행일수(2018년)

(단위: %, 일수)



주: 국내여행에서 ‘경험자 1회 평균 관광일수’는 국내관광 전체를 대상으로, ‘경험자 1회 평균 관광숙박일수’는 국내관광 중 숙박관광을 대상으로 함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여행조사」

■ 한편 ‘국내관광여행⁴⁾의 경우 고령층의 경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참여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타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그림 4) 참조

- 70대 이상의 경우 국내관광여행 경험 비율은 64.2%로 타 연령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관광 여행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1회 평균 관광여행일수’는 1.6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특히, 숙박 여행만을 대상으로 한 ‘1회 평균 관광숙박여행일수’는 2.4일로 타 연령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60대의 경우 국내관광여행 경험률은 84.7%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여행 경험자의 ‘1회 평균 관광여행일수’와 ‘1회 평균 관광숙박여행일수’는 각각 1.7일과 2.4일로 타 연령대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음

3)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 경우 20세 이상 성년을 대상으로 논의하였음

4) 국내여행은 친지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관광 목적의 여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의 적극성은 관광여행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1회 평균 관광여행일수’와 ‘1회 평균 관광숙박여행일수’를 모두 활용하여 판단함

-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타 연령대와 대비하여 체육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에 대한 참여 비율은 낮으나, 참여하는 계층의 적극성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 고령층 집단 내 상호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됨
 - 고령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 등의 이유로 활동적인 여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나, 일단 참여하는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관광여행의 경우 더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여 비율이 저조한 것에 비해 참여의 적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험의 역할을 소득과 건강 중심에서 여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여가활동 관련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 고령층 상호 간에 건강 및 생활패턴에 내재된 리스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동이나 여행 등 활동적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액티브 시니어 전용의 레저보험이나 여행보험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여가와 관련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 보험회사의 협업에 의한 고령취약계층 전용의 여가보험 개발 및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iyi

5)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